

1. 하나님과의 흥정, 과연 통할까?

바다에서 표류 당한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망망한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풍랑만 심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 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4분의 3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이번에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 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그 때 다른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빨리 기도를 멈춰, 저기 섬이 보여!”

이 이야기는 우리 모습과 참 닮았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나 때론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만 붙게 해 주시면 새벽에 평생 나오겠습니다.”

익숙한 고백이지요.

우리 안에는 ‘거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흥정을 반복하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상에서는 거래가 통합니다. 값을 치르면 물건을 얻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조금 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른바 ‘흥정하는 기도’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흥정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며 사람 수를 줄여가며 협상했고(창 18장), 야곱 또한 벤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창 28:20-22)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흥정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을 거부하시지 않으십니다. 흥정하는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우리의 방식으로 결과를 조정하려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 속에서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내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하고 벼룩없이 보일수도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은 흥정의 결과보다 흥정의 과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흥정의 과정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결국 흥정을 내려놓는 자리, 전적인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흥정은 거래의 성공이 아니라 관계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의 협상은 결국 소돔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말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눅 11:9)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만약 주신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미는 조건표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흥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거래’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흥정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조건”을 붙였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나요?

→ _____

-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내세워 기도했던 성경 인물들을 떠올릴 때,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_____

- 하나님은 ‘흥정의 성공’이 아니라 ‘관계의 성장’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관계로 더 가까이 부르신다고 느낀 순간이 있다면 나눠볼까요?

→ _____

- 내 삶에서 지금 “내가 결과를 조정하려는 자세”를 내려놓아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첫 걸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 _____

- 이 글을 읽고 앞으로 나의 기도 생활에서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_____

- 지금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나누고 싶은 실제적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연약함과 계산적인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께도 조건을 걸고, 기대와 두려움을 섞어 흥정하듯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거래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마음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결과를 조정하려는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신 주님,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조건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그저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